

광범위 장절제술후 발생한 Oxalosis에 의한 만성 세뇨관성 간질성 신염 1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교실, 신장병 연구소
박재영, 한상엽, 윤종우, 조상경, 차대룡, 조원용, 김형규

Oxalosis는 지속적인 oxalate의 혈중농도의 증가로 신장을 포함한 심장, 맥관벽, 골근육계등 전신 장기를 침범하며, 신조직내 침착시 양측성 신결석, 신석회화 및 만성으로 진행할 경우 만성 세뇨관성 간질성 신염에 의한 만성 신부전에 이르는 질환이다. Oxalosis의 원인으로는 선천적으로 간내 효소결핍에 의한 경우가 있으나 드물며, 지방 흡수장애를 유발하는 장질환에서 지방산 흡수의 장애에 따른 oxalate의 과흡수가 보다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저자들은 장간막 동맥 경색에 의한 소장 절제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만성 간질성 신염을 동반한 oxalosis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

71세 여자로 1개월 전부터 시작된 피뇨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과거력상 1년전 장간막 동맥 색전증으로 인하여 우측 대장을 포함한 광범위 소장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내원시 생체중은 정상이었으며 진찰소견에서 결막 창백 소견을 보였다. 검사실 소견은 Hb 8.8 g/dl로 빈혈(normochromic normocytic anemia)소견을 보였고 간기능 검사는 정상이었으며 혈청 BUN/Cr은 각각 53mg/dl, 4.8mg/dl로 질소혈증이 관찰되었다. 소변 검사에서 albumin(+), blood(++), RBC 15-20/HPF, WBC 2-3/HPF, 24시간 요검사상 protein 860mg, creatinine clearance 20 ml/min였다. 혈청학적 검사는 음성이었으며 요단백 전기영동상 세뇨관성 단백뇨 양상을 보였다. 복부 X선 검사와 초음파 검사에서는 양측성 신결석을 동반한 신석회화 소견과 함께 장골 동맥의 석회화 소견이 관찰되었다. 심전도 검사에서는 심방세동을 보였고, 심장 초음파검사에서는 좌심방 확장소견의 특이 소견은 없었다. 치료는 수액공급, 식이요법, 경구 칼슘투여등의 보존적 치료로 현재 외래 추적관찰 중이다.

만성 B형 간염환자에서 Lamivudine 과 Daclizumab 를 투여한 신이식 1례

봉생병원 내과
허동, 박민, 윤대현, 신용훈, 박용기, 신용훈, 김미선, 김중경, 이시래

신이식 환자에서 만성 간질환은 이식신 생존율뿐만 아니라 환자의 생존율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B형, C형 간염환자에서의 신이식은 이식후 투여된 면역억제제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간염의 악화 또는 간부전으로 인한 사망율이 높다는 연구 보고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환자에서는 이식전 간조직 검사를 비롯한 세밀한 간기능 검사로 선별적인 신이식이 요구된다.

본원에서는 HLA-haploidentical 남동생으로부터 신이식이 예정된 33세 남자환자로 HBsAg 양성, HBeAg 양성, HBV DNA 양성(520pg/300μL)이며 평소 간효소 수치는 정상을 보이나 간조직 검사상 비특이적 문맥 역 염증(nonspecific triaditis)으로 진단되어 이식 일주일전부터 cyclosporin microemulsion(Neoral)으로 면역억제 유도중 투여 6일 만에 AST/ALT(138/235)의 급상승을 보여 수술을 연기한후 HBV DNA replication을 억제하는 항virus 제제인 lamivudine을 신기능에 맞추어 (37.5~75mg/day) 투여하였다. 투여 10일째 AST/ALT의 감소로 Neoral을 6mg/kg/day 용량으로 다시 투여하였고 투여 12일째 AST/ALT 23/17를 보여 예정된 신이식을 시행하였다. 저자들은 급성거부 반응을 억제키 위해 IL-2 수용체 억제제인 daclizumab(ZENAPAX®)을 1mg/kg의 용량으로 이식 하루 전과 이식후 2주일 간격으로 총 5회 주사 하였으며 기존 면역억제제는 Neoral, steroid, mycophenolate mofetil을 병용 하였다. 현재 이식후 60일 까지 정상 간기능 수치(AST/ALT 19/33, HBV DNA 음성)를 보이고 있으며 BUN 16.8mg/dl, 혈청 creatinine 1.1mg/dl로 양호한 신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만성 B형 간염환자에서 Lamivudine 및 daclizumab을 투여하여 성공적인 이식을 시행한후 술후 2개월에 양호한 경과를 보인 1례를 보고하는 바이다.